

與野, 상임위원장 놓고 줄다리기가... '원 구성' 타결 난항

개원 본회의 D-day

민주당, 오늘 의장단 선출 의지
통합당 “졸속 독재의 선전포고”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여야 간 입 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오리무중에 빠졌 다. 국회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히는 법 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양보하지 않으면 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하 반기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 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장이 필 요한 입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 부·여당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예결위 위원장을 필요로 한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21대 총선 이후 원 구성 협상에 나선 가운데 법사위·예 결위위원장 직 배분을 두고 여러 차례 논 의했다. 하지만 원내대표에 이어 원내 수석부대표 간 회동까지 거쳤지만, 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한국포럼 포스트 팬데믹, 위기가 기회인가?’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간 협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과 통합당 모두 한 치 양보 없이 맞붙으 면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과 함께 ‘5일 첫 임시국회 개원’ 소집 요 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국 회법이 정한 개원 국회 소집일에 의장

단 선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곧 통합당에 대한 경고성 메시 지로 해석됐다.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에서 민주당에 양보하라는 메시지인 셈 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 대표보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관 행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

고, 협치로 법도 무시했다. 야당은 여전 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중단지처럼 모시지만 국민은 과거 관행을 혁파하고 국회 근본부터 바꾸라고 명령한다”며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나도 내일 본회 의를 하겠다. 새로운 국회의로의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 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 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회를 망치고 삼립 분립 원칙 을 훼손, 국론을 분열하는 졸속 독재의 선전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통합당 없이 21대 첫 국회를 단독으로 개원할 경우 큰 정치 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주원 내대표는 민주당에 “이런 국가적 위기 속 에 국정과제를 하나 하나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국회 상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 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론 역시 민주당의 주장에 호의적이

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이가 쿠키뉴스 의뢰로 5월 30일~6월 1일까 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 상으로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에 대 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56.0%가 ‘관례대로 하라’고 답했다. 국 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당 주도하 에 구성하자’는 의견의 경우 응답자 37.2%만 동의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 론조사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때문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4일 저녁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만 나 막판 담판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계 획이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내 부분 아니라 외부에서도 별도로 만나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양측 모두 협 상이 결렬돼 21대 국회가 ‘파행’으로 시 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 석되는 대목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기업인 이동 신속통로, 아세안 확대 추진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
성윤모 산업부 장관, 협력방향 제시

정부가 한-중간 기업인의 상호 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시행 중인 ‘기업인 이동 신속 통로’를 아세안 국가로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아세 안 10개국 경제장관 등은 4일 ‘특별 아 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회의에는 아 세안 사무총장, 중국 상무부 부장, 일본 경산성 대신도 참석했다.

이번 경제장관회의는 앞서 지난 4월 열린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경제 분야 협력 관련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



화상회의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성장관은 회의에서 지난번 정상회의 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강조했던 ‘필수 적 기업인의 국가간 이동 보장’의 필요 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세안+3 국가 간 협력 방향으로 △시장개방 유지·확대 및 상품·서비스의 이동 원활화 △코로

나 이후를 대비한 협력 확대 등도 제시 했다.

특히 기업인 이동 보장과 관련, 현재 한-중간 시행중인 ‘기업인 이동 신속통 로’를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요가 큰 아 세안 역내 다른 국가로 확대하자고 제 안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관련해 서는 디지털경제 활용, 산업기술·표준 협력 플랫폼 구축·활용, K-방역 경험 공유 및 방역 관련 산업협력 확대 등 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3 경제장관들 은 공동성명을 통해 필수재화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비관세장벽 및 무역제한조 치 자제, 필수 기업인 이동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경제를 통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RCEP 서명을 통 한 역내경제통합 강화 등을 위해 협력 키로 약속했다. /한용수 기자 hys@

한농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S등급’

국립한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 는 2019년 사업실적에 대한 ‘2020년 책 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는 해당 기관 의 책임성 확보와 기관 관리 운영의 효 율성 제고 등을 위해 행안부가 전년도 실적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한농 대는 지난 2008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 정됐으며, 현재 운영 중인 52개 책임운 영기관 중 유일한 대학으로 매년 종합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종합평가에서는 지정 이래 처 음으로 A등급을 받아 가장 실적이 많이 향상된 도약기관상을 수상했고, 올해 평가에선 최고 등급을 달성해 2년 연속 최고 성적을 갱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립한농수산대학 전경 /한농대

올해 평가에서 한농대는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맞춤형 청 년 인재를 양성하는 원년으로 삼아 드 룬, 3D 프린터, 스마트팜 등에 대한 관 련 교육을 강화한 것과, 이를 위해 전 학 과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가 하면 드론 과 농기계 기능사 실기시험장으로 지정 받는 등 농수산업 차세대 청년 인재 육 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용수 기자

해양수산 벤처 역량강화 해수부, 컨설팅사업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수 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조승환)은 해 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지원한다고 4일 밝 혔다.

이번 컨설팅 지원은 ‘사업화 컨설팅 프로그램’과 ‘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 램’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사업화 컨설팅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모델 수립, 국내외 시장조 사,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램’은 기업진 단을 통한 재무전략 설계, 투자유치에 대한 기본 교육, 기업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수립과 투자자 매칭까지 지원하 게 된다. /한용수 기자



‘코로나19 극복’ 유동-납품업계 상생협약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납 품업계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달의 A-벤처스 ‘델리스 주식회사’

농식품부, 고품 조미료 ‘순간’ 개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A-벤처스 기업으로 ‘델리스 주식회사(대표 김희곤)’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A-벤 처스는 농식품(Agri-) 벤처와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이끌 ‘어벤처스’를 의미 한다.

델리스는 천연재료를 고품화시켜 물 에 녹이면 육수가 되는 ‘순간’이라는 조 미료를 개발해 판매하는 기업이다. 주 력 제품인 순간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기존 고품화 조미료 녹는 시간, 염도 등 을 개선했다. 한국식품연구원(KFRI)와 공동연구를 수행해 자체 개발한 동 결건조 제조 기술을 적용해 뜨거운 물 을 3초만 넣어 두면 간편하게 육수를 낼 수 있다. 이 기술은 ‘동결건조 천연육수 및 이의 제조방법’으로 특허출원 중이 다. 또 ‘항고혈압 기능을 포함하는 천연 조미료의 제조방법’ 특허 기술을 이전 짜게 먹는 식단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재료 손질, 우려내기, 재료 건져내 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번거로운 작 업 없이 제품을 맹물에 넣기만 하면 천 연 육수를 완성할 수 있고, △수분 함량



델리스 주식회사 김희곤 대표 /농식품부

이 낮아(8%미만) 실온 보관 가능 △부 피가 작아 휴대성 뛰어남 △1인분 단위 로 소포장해 야외에서도 사용하기 용이 하게 특징이다.

제품 특징에 맞춰 ‘맛있는 육수를 만 드는 정성은 그대로, 요리하는 시간은 빠르게’라는 전략으로 다양한 소비자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지난해 크라 우드펀딩을 통해 목표금액 대비 5배가 넘는 매출액을 달성, 온라인 시장 진입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딛었다. 올해 4차 례의 ‘카카오 메이커스’ 판매에선 회당 평균 1000여개의 제품 판매 실적도 거 뒀다. 올해 2월엔 미국에 자사 제품 5250달러어치 수출 성과를 냈고, 향후 대만과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도 계획하 고 있다. /한용수 기자